

HIV치료제 출하 시작... 1.2조 시장 공략



지난 4월 FDA, 'CT-G7' 잠정 승인
글로벌 조달기관과 1600만弗 계약
조달시장 일정 맞춰 물량 양산·출하

셀트리온제약이 글로벌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CT-G7' 출하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CT-G7은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HIV 치료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3개 성분으로 구성된 개량신약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

약국(FDA)으로부터 CT-G7의 잠정 승인을 획득하고,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다수의 국제조달기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셀트리온은 최근 글로벌 조달기관들과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올 하반기 추가 계약을 통해 올해 총 3600만 달러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 내 케미컬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3월 CT-G7 생산시설에 대한 FDA 실사를 무결점으로 통과하고, 최근 연구 및 생산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CT-G7 글로벌 조달시장 공급 일정에 맞춰 조달 물량의 양산 및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셀트리온을

통해 국제조달기구에서 지정하는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며, 셀트리온제약은 향후 조달시장 수급 상황과 기타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생산 일정을 고려해 CT-G7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CT-G7 출하로 상업생산 중인 CT-G1(리네졸리드, 항생제), CT-G2(테믹시스, HIV 치료제)를 포함한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 공급 예정인 CT-G4(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도 상업생산 막바지 단계에 있어 올 3분기까지 총 4종의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생산 포트폴리오를 갖출 전망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CT-G7의

출하는 글로벌 케미컬 제품의 본격적인 공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조달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셀트리온 그룹의 케미컬의약품 생산 및 공급 능력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케미컬 제품 생산기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의료재단 CHAI에 따르면 CT-G7을 포함하는 HIV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업 초기 약 10% 점유율에 해당하는 1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상처에 꼭 '페리톡겔'

한미약품이 입안 상처 및 통증 부위에 직접 바르는 '페리톡겔(사진)'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페리톡겔에 함유된 리도카인염산염은 마취 기능이 있어 상처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며, 항균 작용을 하는 염화세틸피리디늄은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페리톡겔은 바나나향의 무색 내지 미황색의 투명 겔 타입 제품으로 거부감 없이 상처 및 통증 부위에 직접 발라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페리톡겔을 바르고 20분 이상 지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덧바를 수 있으며, 이후 부터는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바르면 된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줄기세포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올해 안으로 임상 2상 진입 계획
손상 폐조직, 정상 근접수준 회복
바이러스, 검출한계 이하까지 감소

대웅제약이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에 대한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을 승인 받았다. 회사측은 임상 1상 시험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2상을 진입할 계획이다.

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DWP710)는 염증유도물질인 LP S를 이용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전임상 결과 대조군 대비 생존률이 30% 이상 증가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손상된 폐 조직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 뿐만 아니라 감염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수가 검출한계 이하까지 감소하는 등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대웅제약은 합자법인인 대웅인피온과 함께 인도네시아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1상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2상 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보령 바이젬셀 '기술지주사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신기술 사업화 확대·일자리 창출 도모

보령제약 관계사인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젬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이젬셀은 가톨릭대 기술지주회사와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바이젬셀은 정부로부터 올해부터 3년간 약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제대혈 유래 골수성 면역억제 세포(CBMS)를 이용한 신규 임상연구 및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규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젬셀은 현재 림프종 치료제 'VT-EBV-201(개발명)'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VT-Tri(개발명)', 이식편대숙주병 치료제 'ViMedier(개발명)' 등 희귀질환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1일 소형 컴퓨터 단층촬영(CT) 전문 기업인 '바텍' 및 의료기기 부품 소재 기업 '레이언스'와 이동형 소형 CT '스마트 엠'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생명과학 이동형 '스마트 엠' 판매계약 체결

중소병원·정형외과 등도 설치 가능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1일, 소형 컴퓨터 단층촬영(CT) 전문 기업인 '바텍' 및 의료기기 부품 소재 기업 '레이언스'와 이동형 소형 CT '스마트 엠'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동국생명과학은 '스마트 엠'의 국내 판매권을 갖고, 바텍은 생산과 유지보수, 바텍의 자회사인 레이언스는 '스마트 엠'의 핵심 부품인 '디텍터'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바텍'이 개발한 '스마트 엠'은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은 물론

두부(머리), 경추(목뼈), 팔다리, 관절 부위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다. 3차원 3D 이미지로 구현이 가능한 최첨단 의료장비이며, 레이언스가 직접 개발한 고성능 디텍터를 장착해 피폭선량도 전신 CT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또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 시설 공사가 필요한 기존 CT와 달리 가정용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법규상 기존 전신 CT는 200병상 이상 대형 병원만 도입할 수 있지만, '스마트 엠'은 200병상 미만 중 소병원, 요양병원, 정형외과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혈압과 혈행건강 동시 케어

대웅제약은 혈압과 혈행건강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세노메가큐텐'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노메가큐텐+'는 혈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혈압 건강에도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와 코엔자임 Q10을 한 알에 담았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로 혈행 개선, 코엔자임 Q10으로 혈압까지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

또 특히 받은 장용성 캡슐로 위가 아닌 장에서 흡수되어 비린내는 줄이고 흡수율은 높였고,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는 엔초비에서 추출한 최상급 신선도를 갖춘 골든오메가사의 원료를 함유했다. /이세경 기자

일동제약

포럼서 신약 파이프라인 홍보

일동제약이 '제18회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에 참가해 신약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홍보와 함께 중개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밝혔다.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 포럼은 제약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 교류 및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열렸다.

행사 기간 중 일동제약은 1대1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자사의 ▲고형암 치료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등 간 질환 치료제 ▲노인성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등 안과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과 관련한 자체 신약파이프라인을 알리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세경 기자

코로나 위험에도 자가격리 환자 응급수술

동탄성심병원, 복막염환자 수술 성공

지난 4월 저녁 7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다급한 환자가 도착했다. 사흘 전 미국에서 귀국한 50대 서지영(가명)씨로, 미국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 곧바로 전이가 의심됐으나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개월 넘게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귀국을 결심했다. 환자는 응급실 도착 직후 2차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수많은 고민 속에서 김정연 교수는 응급수술을 결정했고, 다음날 새벽 2시 수술에 들어갔다. 방호복을 착용했던 의료진은 땀에 흠뻑 젖었지만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수술을 시행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중환자실

해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행히 2차 코로나19 검사결과에서도 음성이나왔다. 수술결과도 좋았다. 환자는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4일간 격리병동에서 치료받은 후 퇴원 전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하여 음성 판정을 받고 안전하게 퇴원했다. /이세경 기자